제조·서비스까지…전남광주 120여개 기업 채용문 활짝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

오는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 행사 병행
일자리·미래산업 탐색 기회 등 제공

광주·전남 120여개 기업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6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에 따르면 전남광주앵커사업단이 주최하고 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The 24th PHOTONICS KOREA)'와 병행 개최되며, '내일의 일자리, 오늘 여기서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기업과 대학,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취업매칭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지역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 협력형 취업박람회로,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이 기업과 직접 만나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위해 한국알프스, 오이솔루션, 우리로, 엠피닉스 등 제조·광융합기업뿐 아니라 의료·금융·관광·호텔·유통·서비스 분야 기업까지 참여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대기업 채용설명회도 마련된다. LIG D&A, 한화시스템, 앰코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기업별 채용계획과 직무, 인재상, 지원자격, 직무별 필요역량 및 채용절차 등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취업컨설팅과 직무상담, AI 기반 취업지원, 미래산업 직무체험, 기업-구직자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가자가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기업과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기간 개최되는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엑스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광반도체 특별관'을 운영하고, 8개국 6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취업박람회 참가 청년들은 채용정보와 함께 광융합·광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최신 기술과 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시부터 기업 탐색, 직무 이해, 채용상담, 현장면접,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취업박람회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 청년에게는 지역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신걸 상근부회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취업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제광융합엑스포와 함께 개최되는 만큼, 광융합·반도체·방산·AI 등 미래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직무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로봇과 만나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콘진원, K-콘텐츠로 중동 시장 공략 '잰걸음'

'코리아360 두바이 K-페스트' 성료
뷰티·패션전시·문화·푸드 등 다채
214건 1천946만 달러 수출 상담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K-콘텐츠와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이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콘진원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과 중동 한류 거점인 '코리아360(KOREA 360)'을 중심으로 '코리아360 두바이 K-페스트'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 소비자에게 K-콘텐츠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리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팝 공연을 비롯해 K-뷰티·콘텐츠 체험, K-패션 전시, 태권도·댄스 워크숍, 한국어·문화 체험, K-푸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9월29-30일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에서 '한류 IP 마켓'을 열고 애니메이션·방송·실감콘텐츠·게임 분야 국내 콘텐츠 기업 16개사가 중동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이틀간 중동·글로벌 바이어 53개사와 총 241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상담액은 1천946만 달러(약 261억원)를 기록했다. 업무협약(MOU)도 11건 체결됐다. 참가 기업들은 콘텐츠 유통과 공동제작, 라이선싱,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K-팝 공연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현지 관심이 이어졌다. 가수 권은비와 K-팝 그룹 원어스의 공연을 비롯해 안무가 아이키·최영준의 무대와 태권도·K-팝 댄스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에는 K-페스트 게이트, K-뷰티 존, K-콘텐츠 존 등 팝업 공간을 조성했다. AI 포토와 댄스·게임형 콘텐츠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탬프 투어를 통해 방문객을 코리아360으로 유도했다.

팝업 행사장에는 총 51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스탬프 투어에는 3천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코리아360 방문객도 6만1천여명을 기록했으며 약 1억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안태호 기자

광주상의, 정규직 전환형 인턴 공개채용

일반사무직 부문 오는 27일까지 접수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지역 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분야는 일반사무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사 후 부서 배치에 따라 경영 총무, 회계 세무, 정책건의 조사, 국가자격검정, 정부 지자체 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채용된 직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5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무성적과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도 등 종합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된다.

지원자격은 학부 성적과 공인어학성적 등 광주상의가 정한 채용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세부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전형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논술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이후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수행 적합성과 의사표현력, 논리력,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등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기업 현장을 이해하고 상공회의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영지원본부 채용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선옥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9시→9시30분 문 연다

금융노사 단협 체결…임금 3% 인상 합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일 내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또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0%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용 확대와 사회 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액 임금의 0.75% 상당 금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명 규모로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총액 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또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선옥 기자

